

김현미 장관 ‘공공임대 하자보수절차 개선, 품질제고’ 강조 -18일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방문·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직접 만나 애로사항 청취-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8일 고양향동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하여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택품질 및 하자보수 절차를 점검하였다.
- 이 날 김 장관은 입주민과의 대화에서 주택 관련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세대 경계벽체의 차음성능을 직접 점검하는 등 주거복지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뒤,
 - “입주민분들께서 임대주택의 하자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계셔서 걱정이 많다”며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변창흠 사장에게 “오늘 말씀 해주신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이후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품질제고 방안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“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온 것은 알고 있지만, 입주민분들의 주거 만족도라는 결실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”라며,
 - “특정 단지나 사례에 한정된 부분적 대책마련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의 품질 강화를 위해 하자의 원인이 자재의 품질 미달인지, 건설·감리 등 시스템 오작동인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, LH의 직접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한편,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하자보수체계 혁신, 주택 성능강화 등 품질 강화조치를 적극추진할 계획이다.

2020. 9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